

개인 심리적 요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개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박사수로 안연주*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인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4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020) 중 3,129쌍의 부부 결합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부부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APIM 모델을 통해 변인 간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내와 남편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 비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남편은 아내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의 우울감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경우 자신의 우울감이 아내의 우울감보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와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공유된 결혼생활에 대한 결혼만족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다루는 상담

* <https://orcid.org/0000-0001-8263-854X>

** 교신저자: yschoi@smu.ac.kr, <https://orcid.org/0000-0002-3795-9667>

및 교육 등에서 개인의 특성을 민감히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아내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부부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다루는 것은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우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자기-상대방상호의존모형(APIM)

I. 서론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중 2세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45.3%이며, 그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9.8%였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가구 중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일반가구 중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높으며, 따라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고 존중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관계 가운데 하나의 모습인 부부 또는 커플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에게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구들에서는 결혼을 통해 커플은 삶의 만족도가 처음에는 약간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Grover & Helliwell, 2019; Kalmijn, 2017).

가족을 이루는 하위체계 중 중심이 되는 부부는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적응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지혜정, 2006). 결혼만족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사회적

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이후 부부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의사소통과 개인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나타났다(김남진, 김영희, 2010; 김정희, 2019; 김향순 등 2014; 나남숙, 이인수, 2017; 이명옥, 하정희, 2007). 이와 더불어 부부의 관계내적요인과 개인내적요인을 함께 살펴보거나(이정은, 이영호, 2000; 지혜정, 2006), 부부의 특성이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박영화, 고채홍, 2005; 윤지연, 강선경, 2018; 차근영 등, 2017).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만족도의 경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이용해 접근할 것을 제안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은 결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왔고(윤지연, 강선경, 2018; 지혜정, 2006; 차근영 등, 2017), 부부처럼 밀접한 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목을 받아왔다(Larson & Almeida, 1999). 이와 관련해서, 커플치료 분야에서도 개인의 우울감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주는 부부관계에서의 영향이 개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Gurman, 2015). 즉, 개인의 우울감은 배우자에게 전이되거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를 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경우 결혼생활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unsaville et al., 1979),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지혜정, 2006). 그러나 기존연구들에서는 자신의 우울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부부를 한 쌍으로 우울감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Brenden의 연구(1992, 이재경, 김순규, 2014 재인용)에서 자아존중감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일생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삶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지만, 낮은 경우에는 불행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향을 가진다(정인희, 2012).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현재 자신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등(유수복, 2012; 이경희, 윤미현, 2011)에, 대학생 및 초기성인기에는 취업 및 사회성 발달 등(유창민, 2018; 이민선, 채규만, 2012)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후의 주요 관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박상화, 하창순, 2016; 심의경, 오봉욱, 2018).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개인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면서 결혼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다루며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박영화, 고채홍, 2005; Kito, M. & Sato, K., 2017; Jessica, L., et. al, 2019; S. Maroufizadeh, et. al. 2018). 경남지역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박영화와 고채홍(2005)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Kito와 Sato(201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roufizadeh 등(2018)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부부의 우울감에 미치는 상호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자기효과가 있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아내의 우울감이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우울감이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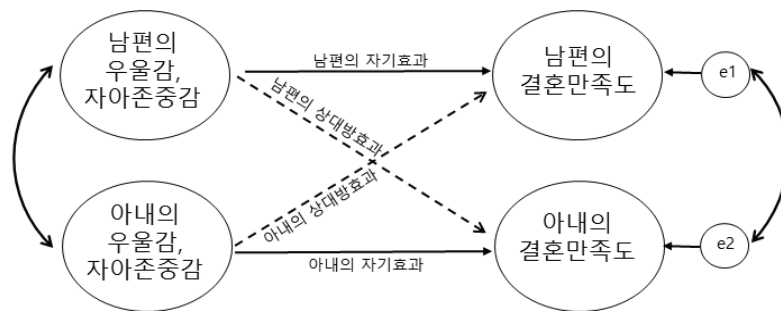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표본을 가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적 요인의 대표적 측정 영역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부 개인의 심리적 특성(우울감, 자존감)과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우울감, 자존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 고찰

1. 우울감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2016)에는 주요우울장애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25.4%의 정신장애 가운데 5.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우울장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2배가량 높게 발병하고, 남성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울감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감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감은 의욕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발생시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며, 이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연, 강선경, 2018; 전은주, 김득성, 2013).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이영환(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 우울감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윤아와 정민혁(2014)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궤적을 살펴봤는데,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와 남편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였다. 아내의 초기 우울 수준은 남편의 우울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남편의 초기 우울 수준은 아내의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다(Rosenquist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13). 부부는 끊임없이 언어·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가족의 하위체계로 배우자가 가지는 우울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개인의 우울감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나, 부부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향적 영향력과 남편 또는 아내 중 한쪽만 살펴본다거나 특정 대상을 살펴보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한 쌍을 이룬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영향력을 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의 자기-상대방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 APIM) 분석을 함으로써 변인 간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s(1965, 최혜림, 1999 재인용)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수용

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Jelly(198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친근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기주장을 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높아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고 한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관계를 맺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박상화, 하창순, 2016).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화, 하창순, 2016; 심의경, 오봉옥, 2018).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박영화와 고채홍(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감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의 안정성도 높게 나타났다(박영화, 고채홍, 2005).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상호영향력에 대해 API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에 대해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결혼만족도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결혼만족도에 자신과 배우자인 상대방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자아존중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의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증하고,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부는 각자의 성장배경과 개인적 가치관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가 만나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기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고(윤운하, 김현주, 2018; 황성실, 김영희, 2013; 황종귀, 2009),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부관계의 내밀한 친밀성, 독립된 개별존재로의 인정과 더불어 부부가 유대감을 갖고 상호 돌봄을 제공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주고(Acevedo & Aron, 2009), 갈등에 대한 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경우(Barelds, 2005),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경우(이정은, 이영호, 2000) 등이 있었다.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는 배우자 폭력과 정적 상관이 있고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성준, 한창근, 2019; 박정민 등 2017).

결혼만족도가 낮아 결혼생활에서 불행감을 가질 경우, 육체·정서적 건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고(정연옥, 2016), 이혼 고려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김수정, 권신영, 2001).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된다. 특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할 때에는 상호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문제로만 분석하거나 일방향적인 영향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부부 상호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운데 개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

된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14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020)를 사용하였다. 상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정서, 인지, 행동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처럼 쌍을 이루는 비독립적인 연구대상은 한 쌍을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Cook & Kenny, 2005; Kenny et al., 2006). 또한, APIM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 모두 설문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3,129쌍을 부부 결합데이터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7점)’까지로 측정한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 우울감, 자아존중감

(1) 우울감

우울감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11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①극히 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 등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1문항 중 2번 문항 ‘비교적 잘 지냈다’와 7번 문항 ‘불만 없이 지냈다’는 역점수로 처리하였다. 우울감은 11문항의 점수를 모두 0~3점으로 전환하고, CES-D 원척도의 20문항 가운데 한 문항이 적은 CESD-11은 총점에 20/11을 곱해준 점수로 우울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남편 .806, 아내 .817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의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10문항 가운데 부정문항인 5문항에 대해 역점수로 처리하여 합산 후 10으로 나누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관한 Cronbach's α 는 남편 .742, 아내 .716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경상소득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졸업을 기준으로 ① 무학에서~⑨ 대학원(박사) 졸업으로 리코딩하였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이용하였다. 경상소

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공적 이전 소득을 합하여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을 약 25%씩 나누어 4개 구간으로 변수를 생성하여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9,000만원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및 변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급내 상관계수 확인을 통해 부부의 주요 변인들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울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에 대해 부부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쌍체 t검증(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의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과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때 단일변수의 경우 하나의 관측변수이지만 잠재변수로 경로를 설정하였기에 구조모형에서 타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APIM을 활용할 경우 두 사람 간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상대적 크기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효과 간의 비교는 등가제약(equality constraint) 설정을 통한 모형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Kenny & Cook, 1999). 기본모형의 적합도와 등가제약한 모형의 적합도(model fit)에서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통해 그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만일 등가제약을 설정하기 전 모형 적합도에 비해서 등가제약을 설정한 후 모형 적합도가 유의

미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효과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절차를 카이제곱 차이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이라 한다(Srivastava et al., 2006).

주요 변인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및 경상소득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표기를 생략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대상인 남편의 연령은 평균 만62.83세($SD=15.18$), 아내의 연령은 만59.53세($SD=14.63$)였다. 교육수준은 남편(33.4%)과 아내(30.0%)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은 가구주의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평균 6,67.44만원($SD=5,256.27$)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연구에 사용한 주요변수인 부부 개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변수별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6 이하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킨다(Kline, 201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 남편의 자아존중감과 아내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of Couples=3,129)

구분	남편(N=3,129)		아내(N=3,129)	
	n	%	n	%
연령	20대	6 (0.2)	18 (0.6)	
	30대	180 (5.8)	300 (9.6)	
	40대	626 (20.0)	692 (22.1)	
	50대	630 (20.1)	630 (20.1)	
	60대	614 (19.6)	631 (20.2)	
	70대 이상	1,073 (34.3)	858 (27.4)	
	합계(M)	3,129 (100.0)	3,129 (100.0)	
	평균(SD)	62.83 (15.18)	59.53 (14.63)	
교육 수준	무학	148 (4.7)	253 (8.1)	
	초등학교 졸업	429 (13.7)	582 (18.6)	
	중학교 졸업	395 (12.6)	457 (14.6)	
	고등학교 졸업	1,044 (33.4)	939 (30.0)	
	전문대학 졸업	330 (10.5)	353 (11.3)	
	대학교 졸업	653 (20.9)	479 (15.3)	
	대학원(석사) 졸업	114 (3.6)	60 (1.9)	
	대학원(박사) 졸업	16 (0.5)	6 (0.2)	
	합계(M)	3,129 (100.0)	3,129 (100.0)	
경상 소득	3,000만원 미만		838 (26.8)	
	3,000만 원 이상~6,000만원 미만		963 (30.8)	
	6,000만 원 이상~9,000만원 미만		762 (24.4)	
	9,000만 원 이상		566 (18.1)	
	합계(M)		3,129(100.0)	
	평균(SD)		6067.44(5256.27)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1	1					
2	.414**	1				
3	-.470**	-.254**	1			
4	.202**	-.420**	.468**	1		
5	-.239**	-.206**	.371**	.242**	1	
6	-.181**	-.322**	.288**	.352**	.547**	1
평균	5.187	6.074	3.171	3.174	5.66	5.37
표준편차	7.657	8.248	.375	.356	1.009	1.201
왜도	1.884	1.705	-.569	-.491	-1.274	-1.256
첨도	3.429	2.662	.819	.661	2.183	.1648

**p < .01

주: 1. 남편의 우울, 2. 아내의 우울, 3. 남편의 자아존중감, 4. 아내의 자아존중감, 5. 남편의 결혼만족도, 6. 아내의 결혼만족도

우울과 남편의 자아존중감, 아내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서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우울과 아내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자아존중감,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변수의 상호의존성 및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아내와 남편이 한 쌍으로 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부의 모든 변수가 상호의존성(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은 급내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해 검증할 수 있다. 급내상관계수의 기준은 good reproducibility(0.80 - 1.0), fair reproducibility(0.60 - 0.79), poor reproducibility(<0.60)로 설정했다(Sleivert & Wenger, 1994).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의 우울은 85.3% (ICC=.853, $p<.001$), 자아존중감은 80.6% (ICC=.806, $p<.001$), 결혼만족도는 70.0% (ICC=.700, $p<.001$)의 상호의존성(유사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는 서로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APIM 모형을 통해 부부를 쌍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APIM 모형 분석 전에 남편과 부인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감의 경우 아내가 평균 6.074점으로

남편의 5.1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의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014$, $p<.001$).

자아존중감은 아내와 남편의 평균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35$, $p<.05$). 결혼만족도의 경우 남편이 평균 5.66점으로 아내의 평균 5.3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5.252$, $p<.001$).

4. 연구모형 분석

1) 모형 1 : 개인의 우울감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상대방효과

부부의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397.04(df=16)$, $p<.001$, CFI=.962, TLI=.933, RMSEA=.087로 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우울감은 자신의 결혼만족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자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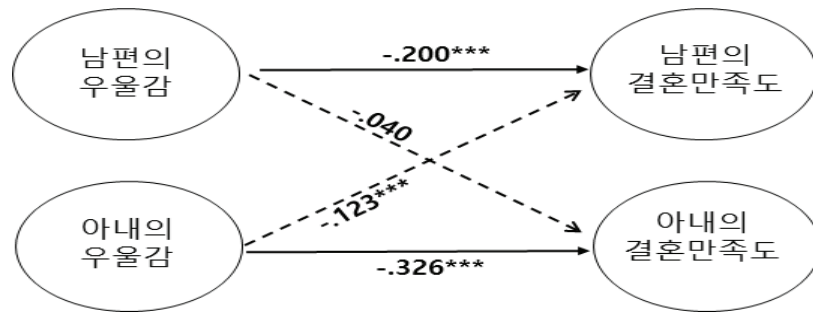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우울감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우울감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우울감은 남편의 결혼만족도

<표 3> 주요변수들의 상호의존성 분석

변수	남편	아내	paired t-test	ICC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감	5.187(7.657)	6.074(8.248)	54.014***	.853***
자아존중감	3.171(.375)	3.174(.356)	2.335*	.806***
결혼만족도	5.66(1.009)	5.37(1.201)	15.252***	.700***

* $p<.05$, *** $p<.001$

<그림 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자기효과-상대방효과



<표 4> 모형 1: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자기 효과	남편의 우울감	→	남편의 결혼만족도	-.477	-.200	.054	-8.880***
	아내의 우울감	→	아내의 결혼만족도	-.866	-.326	.059	-14.704***
상대방효과	남편의 우울감	→	아내의 결혼만족도	-.112	-.040	.062	-1.801
	아내의 우울감	→	남편의 결혼만족도	-.276	-.123	.050	-5.56***
$\chi^2=397.04$, $df=16$, CFI=.962, TLI=.933, RMSEA=.087							

*** $p<.001$ <표 5> 모형 1: 우울감과 결혼만족도의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비제약 모형	397.04	16	.962	.933	.087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	401.97	17	.962	.937	.085	4.931 (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우울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므로 아내의 우울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남편의 우울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 크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아내의 우울감과 남편 자신의 우울감의 효과에 대해 등가제약 모형을 구성하여 기본모형과의 카이제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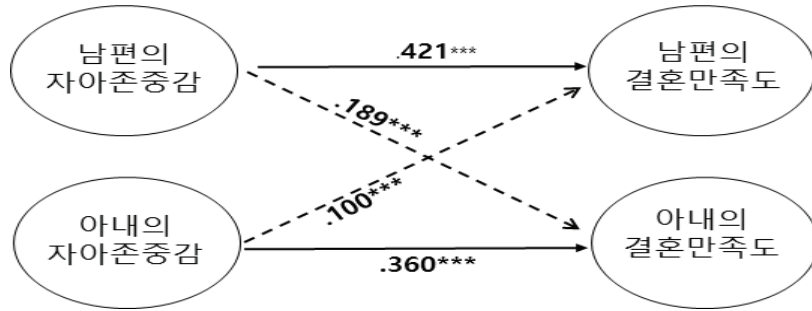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등가제약 모형을 기본모형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Delta\chi^2=4.931$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아내의 우울감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과 남편의 우울감이 미치는(자기효과) 효과 크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아내의 우울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123$, $p<.001$)보다 남편의 우울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200$, $p<.001$)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모형 2 :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상대방효과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그림 3>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상대방효과



<표 6> 모형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자기 효과	남편의 자아존중감	→	남편의 결혼만족도	.967	.421	.057	16.825***
	아내의 자아존중감	→	아내의 결혼만족도	1.069	.360	.076	14.029***
상대방효과	남편의 자아존중감	→	아내의 결혼만족도	.515	.189	.064	8.002***
	아내의 자아존중감	→	남편의 결혼만족도	.249	.100	.060	4.173***

$\chi^2=357.86$, $df=27$, CFI=.958, TLI=.930, RMSEA=.063

*** $p<.001$

<표 7> 모형 2: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비제약 모형	357.86	27	.958	.930	.063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	410.20	28	.952	.922	.066	52.34 (1)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	379.29	28	.956	.929	.063	21.43 (1)

는 <그림 3>과 <표 6>에 제시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357.86(df=27, p<.001)$, CFI=.958, TLI=.930, RMSEA=.063으로 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감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자아존중감과 남편의 자아존중감 모두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함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우울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과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을 같다고 가정하여 등가제약모형을 구성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등가제약모형을 기본모형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Delta\chi^2=52.34$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과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자기효과) 효과 크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100, p<.001$)보다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421, p<.001$)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 등가제약모형을 구성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과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을 같다고 가정하여 등가제약을 실시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등가제약모형을 기본모형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Delta\chi^2=21.43$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과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자기효과) 효과 크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189, p<.001$)보다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360, p<.001$)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와 상대방의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상대방의 자아존중감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개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APIM을 사용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남편과 아내의 우울감은 자신과 상대방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뒷받침 해준다(강혜숙, 김영희, 2008; 박영화, 고채홍, 2005; 윤지연, 강선경, 2018). 본 연구에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높았고,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은하 등, 2013; 박상화 등, 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정신건강실태조사(2016)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부부가 공유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인 결혼만족도에 대해 서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쌍인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공유된 결혼생활을 부부가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차이가 부부관계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이 추정된다.

둘째, 아내의 우울감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우울감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혜정(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영향과 더불어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아내의 우울감(상대방효과)과 남편의 우울감(자기효과)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남편 자신의 우울감 영향(자기효과)이 아내의 우울감 영향(상대방효과)보다 미치는 효과가 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부의 개인 심리의 차이와 연결된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고,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효과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우울감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때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컸다. 선행 연구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고, 자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화, 고채홍, 2005; Kito & Sato, 2017).

이러한 결과에서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자신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나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상담에 접근하는 가족치료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한 명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부부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면 이는 부부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부부가 공유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달랐다. 이는 부부는 공유된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해 동일시하거나 개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확연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서로의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은 상호 존중감을 갖게 해 줄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생활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부는 서로가 바라보는 결혼생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를 교육하는 경우 또는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부부상담의 장면에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개인차를 다루는

것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내의 우울감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우울감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적 문제를 표현하지 않도록 사회화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Mahalik et al., 2003). 즉, 아내는 본인의 우울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남편에게 표현하고 관계에 드러냄으로써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편은 자신의 우울감에 대해 배우자에게 표현하기 어려워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부부관계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우울증에 대해 상대방이 지지가 되어주는 부부상담은 효과적인 치료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Meyer et al., 2019). 따라서 부부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 또는 상담 장면에서 배우자의 우울감을 다루는 것은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 우울감에 더 취약하고, 아내의 우울감은 자신과 배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내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내와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대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었고, 자기효과가 더 컸다.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친근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는 결과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배우자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부부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는 높은 결혼만족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감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역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다루는 것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족상담은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참여하더라도 그 개인이 속한 관계의 망을 단위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것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정문자 등,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볼 때, 부부상담의 경우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먼저 다룰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결혼만족도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척도를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결혼만족도 측정을 위해 향후 조사연구에서는 다문항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패널자료의 경우 종단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 기간이 지속되면서 개인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요인이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보다 심화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 김남진, 김영희(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97-225.
- 김수정, 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4.
- 김은하, 남현숙, 김태훈(2013). 부인의 우울과 화병이 남편의 우울과 화병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만족도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0), 4837-4846.
- 김정희(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57-73.
-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 나남숙, 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6.
- 맹성준, 한창근(2019). 가계부채가 가족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산과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1), 57-81.
- 박상화, 하창순(2016). 기혼자의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정서인식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499-522.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정민, 박호준, 오욱찬(2017).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8(4), 33-57.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 심의경, 오봉욱(2018). 자아존중감이 성인의 가족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아시아문화학술원*, 9(3), 327-340.
- 유수복(2012). 초등학생의 맥락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

- 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195-214.
- 유창민(2018).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10년간의 변화과정: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7-44.
- 윤운하, 김현주(2018). 중년기 부부의 장기결혼 유지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4), 549-573.
- 윤지연, 강선경(2018). 부부의 결혼만족도, 우울 및 알코올 사용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검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7, 37-60.
- 이경희, 윤미현(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 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명옥, 하정희(201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19-535.
- 이민선, 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方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영환(2014).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중단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7, 163-185.
-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재경, 김순규(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특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1(3), 21-41.
- 전은주, 김득성(2013). 신혼기 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73-84.
- 정문자, 정혜정, 이선헌, 전영주(2012).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연옥(2016). 결혼만족도와 가족친밀감이 기혼자의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적의감 및 신체화 증상.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4), 609-628.
- 정인희(2012). 성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한국위기관리논집*, 8(6), 231-247.
- 지혜정(2006). 부부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51-80.
- 진윤아, 정민혁(2014). 노년기 부부의 Parallel Process로 살펴본 우울 궤적에 관한 연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 335-358.
-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보건사회연구*, 37(2), 126-149.
- 최혜림(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83-197.
- 황성실, 김영희(2013). 부부의 현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45-61.
- 황종귀(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 825-840.
- Acevedo, B. P., & Aron, A.(2009). Does a long-term relationship kill romantic lov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1), 59-65.
- Barelds, D. P. H. (2005). Self and partner personality in intimate relationship.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6), 501-518.
- Brenden, N.(1992). Self-esteem and depression: III. A etiologic Issu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35-243.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D Meyer, B. Kemper-Damm, F. Parola & J. Salas. (2019). Depressive symptoms as a predictor of men's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7(1), 37-43.
- Grover, S., & Helliwell, J. F. (2019).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2), 373-390.
- Sleivert, G. G. & H. A. Wenger. (1994). Reliability of measuring isometric and isokinetic peak torque, rate of torque development, integrated electromyography and tibial nerve conduction veloc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5(12), 1315-1321.
- Eisenberg, D., Colberstein, E., Whitlock, J. L., & Downs, M. F.(2013). Social contagion of mental health: Evidence from college roommates. *Health Economics*, 22(8), 965-986.
- Gurman, A. S. (201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uple therapy. A. S. Gurman, J. L. Lebow, & D. K. Snyder(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pp. 1-1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elly, K. L.(1985). *An explo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oral condu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 Kalmijn, M. (2017). The ambiguous link between marriage and health: A dynamic reanalysis of loss and gain effects. *Social Forces*, 95(4), 1607-1636
- Kito, M. & Sato, K. (2017). The effect of self-esteem on marital satisfaction: Apply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ith dyadic data from spouses.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6(2), 187-197.
- Kenny, D. A. & Cook, W. L.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2006). *The analysis of dyadic data*. New York: Guilford.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3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rson, R. & Almeida, D. M.(1999). Emotional transmission in the daily lives of families: A new paradigm for studying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5-20.
- Jessica, L., Stefania, C., Mirian & A., Alessandra, B., Elizabet A. S.(2019).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adic adjustment in couple relationships: A dyadic analysis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Family Process*, 58(3), 698-715.
- Mahalik, J. M., Glenn, G. E. & Englar-Carlson, M.(2003). Masculinity scripts, presenting concerns, and help seek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training.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 123-131.
- Maroufizadeh, S., Hosseini, M., Foroushani, A. R., Omani-Samani, R. & Amini, P.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infertile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proach. *Biomedcentral Psychiatry*, 18, 310. <https://doi.org/10.1186/s12888-018-1893-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quist, J. N., Fowler, J. H., & Christakis, N. A.(2011). Social network determinants of depression. *Molecular Psychiatry*, 16(3), 237-281.
- Rounsaville, B. J., Weissman, M. M., Prusoff, B.A., & Herceg-Garon, R. L..(1979). Marital dispute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ed women. *Comprehensive Psychiatry*, 20, 483-490.
- Srivastava, S., Kelly, M. M., Jane, M. R., Emily, A. B. & James, J. G.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s: How seeing things in positive light makes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43-153.
- 통계청(2017-2019).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 접 수 일: 2021. 02. 10
심 사 일: 2021. 02. 25
게재확정일: 2021. 03. 25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Individual Depression and Self-esteem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An, Yeon Ju*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Choi, Youn Shil**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ntra-couple differences in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investigate actor-effects and partner-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Method:** Among the 14th Korea Welfare Panel(KOWEP) Study(2020), combined data of 3,129 couples have been used. Also, paired t-test has been implemented to verify intra-couple difference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APIM) model has been used to analyze actor-effects and partner-effects. **Results:** Firs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wives and husbands. Wives tended to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while husbands had higher levels of marital status. Second, wives' depression had impact 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as well as their own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tended to be affected more by their own than wife's depression. Their self-esteem had both partner-effects and actor-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lthough its partner-effect was greater than actor-effect. **Conclusions:** In light of the fact there ar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in marriage that individual psychological traits should be shared, individual traits should seriously be considered in the setting of marriage-related counseling or training. Furthermore, marital satisfaction would be improved by helping couples identify and treat wife's depression, and enhancing self-esteem of each individual.

Key words: depression,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https://orcid.org/0000-0001-8263-854X> (lead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yschoi@smu.ac.kr, <https://orcid.org/0000-0002-3795-9667>